

류현진 복귀 첫 승 세 번째 도전

우천 취소로 하루 연기... 5일 키움과의 경기 선발 제구력 회복에 달렸다... "첫째도 두 번째도 제구"

'돌아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사진·37·한화 이글스)이 한국 복귀 후 첫 승이자 개인 통산 99번째 승리를 거두기 위해 시즌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류현진은 5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4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와 방방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당초 류현진은 4일 대전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열리는 롯데 자이언츠와 홈 경기에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3일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등판 일정이 하루 밀렸다.

류현진은 넥센에서 간판을 바꾼 키움을 상대로 12년 만에 통산 99번째 승리에 다시 도전한다.

이번 키움전은 류현진의 첫 고척스카이돔 나들이라서 더 의미 있다. 고척스카이돔은 류현진이 미국에서 펠 때인 2015년에 개장했다. 류현진이 돔구장에서 KBO리그 경기를 치르는 건 처음이다.

류현진은 이번 시즌 두 차례 선발 등판 경기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복귀전인 지난 달 23일 LG 트윈스와 시즌 개막전에서 제구 난조로 3%이닝 6피안타 3볼넷 5실점(2자책점)으로 부진했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0km를 찍는 등 나쁘지 않았으나 많은 공

이 가운데로 몰려 난타당했다. 류현진은 그 경기에서 탈삼진을 1개도 기록하지 못했다. 한화는 2-8로 졌고, 류현진은 패전 투수가 됐다.

3월 29일 대전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kt wiz와 홈 개막전 투구 내용도 다소 아쉬웠다. 직구 제구가 살아났으나 구위와 변화구 제구가 문제였다.

류현진은 6이닝 동안 탈삼진을 9개나 잡고 볼넷을 단 한 개도 내주지 않았지만, 안타를 8개나 얻어맞았다. 노련한 볼 배합 능력으로 상대 타선을 2실점으로 막은 게 다행일 정도였다.

지난 두 차례 선발 등판 경기에서 문제점을 노출했던 류현진은 이를 악물고 세 번째 도전에 나선다.

키움전 최대 과제는 역시 제구력 회복이다. 류현진도 2024시즌 성적이 제구력에 달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는 29일 kt전을 마친 뒤 "첫 번째도 제구, 두 번째도 제구"라며 "무조건 제구력이 먼저"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NBA '3점 슈터' 3월(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댈러스 매버릭스와 2023-2024 NBA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스테판 커리가 3점슛을 쏘고 난 뒤 공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골든스테이트는 댈러스에게 104-10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

'봄 농구' 오늘 개막... 6강 PO 1차전

5전 3승제 SK-KCC '최준용 더비' 잠실체육관서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PO)가 4일 막을 올린다. 3월 31일로 정규리그를 끝낸 이번 시즌 프로농구는 4일 '봄 농구'를 시작해 챔피언결정전이 마지막 7차전까지 갈 경우 5월 9일까지 한 달 넘게 포스트시즌을 이어나간다.

올해 6강 플레이오프 대진은 정규리그 4위 서울 SK와 5위 부산 KCC, 3위 수원 kt와 6위 울산 현대모비스의 맞대결로 진행된다.

SK와 KCC 승자가 정규리그 1위 원주 DB를 4강에서 만나고, kt와 현대모비스 경기에서 이긴 팀은 2위 창원 LG와 챔피언결정전 진출을 다툰다.

6강과 4강은 5전 3승제, 챔피언결정전은 7전 4승제다.

4일 오후 7시 잠실학생체육관에서 1차전을 치르는 SK와 KCC는 이번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는 나란히 '2강'으로 꼽혔던 팀들이다. 워낙 화려한 라인업을 구성해 '슈퍼

팀'으로도 불렸다.

최근 2년 연속 챔피언결정전에 진출해 2021-2022시즌 우승, 2022-2023시즌 준우승 성과를 낸 SK는 2023-2024시즌을 앞두고는 안양 정관장에서 오세근을 영입해 2년만에 패권 탈환을 벌였다.

KCC는 지난 시즌까지 SK에서 뛰던 최준용을 자유계약선수(FA)로 영입했고,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 송교창이 시즌 도중 전역했다.

특히 최준용이 이적 첫 시즌 6강에서 '진정' SK를 상대하게 되면서 묘한 구도가 형성됐다.

이번 시즌 정규리그 상대 전적은 KCC가 4승 2패로 앞선다. 연합뉴스

손흥민 '토틀넘 400경기 클럽' 가입

비유럽 선수 최초 웨스트햄 원정서 공식전 400경기

한국 축구 간판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명문 토틀넘 홉스퍼에서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다. 바로 토틀넘 소속 비유럽 선수 최초의 '400경기 클럽' 가입이다.

손흥민은 3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런던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EPL 31라운드 웨스트햄과 원정 경기(1-1 무승부)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경기가 끝날 때까지 뛰었다.

웨스트햄전은 손흥민이 토틀넘 유니폼을 입고 치른 400번째 경기였다. 토틀넘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손흥민의 400경기 출전을 기리는 애니메이션까지 올렸다.

손흥민은 1882년 창단한 토틀넘 역사를 통틀어 '400경기 클럽'에 가입한 14번째 선수다.

이 부문 최고는 1969년부터 1986년까지 토틀넘에서 활약한 스티브 페리맨(854경기)이다.

역시 10년 이상 토틀넘에 몸담은 센터백 게리 마버트(1982-1998년)가 2위(611경기)고, 1960-1970년대에 뛰던 팻 제닝스(1964-1977년·590경기)와 시릴 놀스(1964-1975년)가 각각 3, 4위다.

이 목록에서 1992년 EPL이 창설된 이후에 토틀넘에 입단한 선수들만 추리면 손흥민은 3위까지 오른다. 1, 2위 역시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인물들이다.

손흥민 이전에 토틀넘 주장으로

활약했던 프랑스 골키퍼 위고 요리스(현 LA FC·2012-2023년·447경기)가 이 부문 1위다. 역대로 보면 7위다.

손흥민과 찰떡같은 호흡을 자랑하다가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뮌헨(독일)으로 떠난 특급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2011-2023년·435경기)이 그 뒤를 잇는다. 역대로는 10위다.

케인은 2015년 입단한 손흥민과 동고동락하며 EPL 역대 최다 합작 골(47골)의 진기록을 쓰기도 했다.

손흥민보다 역대 출전 순위에서 한 계단 위에 있는 선수는 1955년부터 1965년까지 뛰던 수비수 모리스 노먼(13위·411경기)이다.

'400경기 클럽'에 가입한 14명 가운데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온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올 시즌 손흥민은 15골 8도움을 기록 중이다. 5골 8도움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KLPGA 국내 개막전 제주서 시작

오늘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개막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새로운 '대세'로 떠오른 이예원이 2연승과 대회 2연패라는 두 마리 토끼 사냥에 나선다.

이예원은 오는 4일부터 나흘 동안 제주 서귀포시 테디밸리 골프&리조트(파72)에서 열리는 KLPGA 투어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총상금 12억원)에 출전한다.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은 KLPGA 투어가 올해 국내에서 처음 치르는 대회다. 이예원은 올해 2회째를 맞는 이 대회 초대 챔피언이다.

이예원이 처음 치르는 타이틀 방어전이다. 이예원은 지난해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에서 첫 우승을 거두고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에서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롯데렌터카 여자오픈은 올해부터 열리지 않는다.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이 이예원의 첫 타이틀 방어전이 된 까닭이다.

지난달 17일 태국에서 열린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이예원은 이번에 두산건설 위브 챔피언십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면 2개 대회 연속 우승도 이룬다.

대회 2연패와 2연승으로 맨 먼저 2승 고지에 오른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상금왕, 대상, 평균타수 1위를 차지할 든든한 발판을 닦을 수 있다. 연합뉴스

축 용

김 애 속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군위오씨 태진공파 종친

취 임 용

고 혜 원
(신성여고 27회)

김 현 속
(신성여고 28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취임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신성학원총동문회 회장 김 현 속 외 동문 일동